

메탄올, 천연가스 부족 초강세 지속

Methanex, 재고감소 2003년 뉴질랜드 플랜트 생산량 80만톤 그칠 전망

메탄올(Methanol) 가격이 9월26일 CFR SE Asia 톤당 205-210달러로 보합세를 형성하는 등 2003년 내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메탄올 메이저인 Methanex는 뉴질랜드 천연가스 보유량의 감소로 폐쇄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물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Methanex의 메탄올 플랜트는 뉴질랜드의 북아일랜드에 소재하며 천연가스 대부분을 Maui의 인근 천연가스전에서 공급받는데 계약상의 절차에 따라 2001년 12월 Maui 가스전에서 경제적으로 회복 가능한 천연가스의 보유량을 제한했다.

게다가 2003년 2월초 메탄올 보유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Methanex의 권한이 사라져가는 판이다. 뉴질랜드 플랜트의 생산능력은 약 240만톤인데 Methanex의 2003년 메탄올 생산량은 약 80만톤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Methanex는 천연가스를 추가 인수하면 약 100만톤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렇더라도 생산량 140만톤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 세계의 메탄올 시장은 균형을 잡고 있으나 생산량 손실이 크면 메탄올의 수급이 더욱 위축되고 가격강세가 지속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Methanex는 아시아·태평양의 장기계약 수요기업들과 협력해 생산량감소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메탄올 가격이 톤당 30달러 오르면 수익의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Methanex는 또한 뉴질랜드 플랜트의 막대한 손실분을 세계의 다른 공급소스를 통해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Methanex는 칠레 및 캐나다의 Kitimat에 플랜트를 보유하고 있고 북미에 가동보류 중인 플랜트 하나를 재가동할 가능성도 있다. 뉴질랜드에서도 다른 공급소스를 찾고 있다.

Methanex는 아시아태평양 시장을 공급하기 위해 앞으로 Trinidad 및 Chile 플랜트의 생산능력을 증설하고 오스트레일리아 Burrup Peninsula에 메탄올 200만톤 플랜트를 건설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사업을 보호할 계획이다.

이미 2500만Aus달러(1470만달러)를 투자했고 환경허가를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부지접근을 위해 서부오스트레일리아 정부 및 토착민과 원주민권리협정(Native Title Agreement)을 체결했다.

그러나 뉴질랜드의 천연가스 보유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에도 산업계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8년간 뉴질랜드의 가스보유량이 바닥날 것이란 예측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칠레산 제품이 태평양지역으로 옮겨가고 Trinidad산 제품이 미국 및 유럽의 전통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질랜드 보유량이 한정됐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메탄올 현물시장은 꿈쩍달짝하지 않고 있다. 매도를 해야 할지 유지를 해야 할지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PCI Ockerbloom에 따르면, 메탄올 시장이 타이트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수요의 계절적인 약세를 감안하면 시장은 대체로 균형을 잡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9/29>